

통일 칼럼

남북 안보 합의과제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 협의회의, 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다. 우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거라고 비난했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에도 발끈했다. 이번 발표로 한미 간 안보 현안이 큰 틀에서는 정리됐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후속 과제도 적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물인 공동 성명서로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이 잇따라 발표된 건 지난 11월 14일이다. 국방,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비롯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등의 여러 합의가 담겼다. 신속한 전작권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등 동맹의 현대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문건이 공개된 직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북한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



정복규
논설위원

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논평 곳곳에는 한미에 대한 적대감과 당혹감이 묻어났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먼저, 한미 팩트시트에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가 포함된 것을 두고, 북한의 헌법과 국가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미국에 대해선 우선 이중플레이 하지 마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50여 개 이상의 핵 탄두를 보유한 국가고 그걸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식의 반발이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군비경쟁을 유발할 거라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3월 핵무기를 탑재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공개한 북한이, 핵 연료민을 사용하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적반하장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합의된 의제가 아니었고 이제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승인하는

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약간 허를 찔린 측면이 없지 않다. 한미 팩트시트와 SCM의 공동성명 발표로 양국의 안보 현안이 큰 틀에서 정리됐지만, 후속 과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막상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핵잠수함의 연료 조달과 관련한 원자력 협정의 개정 등 후속 협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병력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SCM 공동성명에선 2008년부터 거구의 매년 포함했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미군의 역할 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나아가 팩트시트에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담겼는데, 향후 한중 관계 관리도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재언

겨울철 도로 위 지뢰 ‘블랙아이스’ 주의보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요즘,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4일 08시 40분 고창군 성송면에서 교차로 램프구간을 통해 진행하던 중방관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연석을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후미를 충돌하는 8중 추돌사고가 있었다. 바로 겨울철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이다. 도로에 방판이 없는데도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크고 운전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이며 서 도로 위 지뢰라고도 불린다. ‘블랙아이스’란 기온이 떨어지는 심야 새벽시간대 교량, 터널 입·출구, 산모퉁이 그늘진 곳과 같이 습도가 높은 지역의 도로에 생기는 살얼음으로 겉보기에 도로가 살짝 젖어 있거나 쫘진하게 포장된 것처럼 보이기때 운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블랙 아이스에서 속도를 높일 시 사

고위험은 배가 되기 때문에 과속과 급출발, 급브레이크에 주의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안전운행 하길 바란다. 빙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타이 어의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늘이 젖 얼음이 잘 녹지 않는 산모퉁이, 교량 위, 터널 입구 등에서 속도를 미리 줄이고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 영하의 날씨에 도로 운행 시에는 타이 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기보다 두세 번 나눠 밟는 것이 좋고, 차가 미끄러질 경우 엔진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리막길이나 커브길에서는 미리 감속하고, 결빙구간에서는 만약 타이 어가 미끄러지면 핸들을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려 차가 회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영하의 기온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겨울철 세심한 주의로 안전 운전하여 무사히 겨울을 나길 바란다.

이정우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근 15년 만에 빛 본 디트로이트 로보캡 동상



지난 4일(현지 시간)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이스트턴 마켓 지역에 로보캡 동상이 세워져 있다. 2011년 크라우드펀딩으로 시작된 이 청동 조각상은 높이 3.3m, 무게 1.5에 달하며 코로나9 등의 여파로 설치 계획이 무산돼 오랫동안 보관만 하다가 마침내 이곳에 자리하게 됐다. 디트로이트는 영화 ‘로보캡’의 배경 도시이다.

사설

후백제와 종광대

후백제 왕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종광대(鍾廣臺)와 여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00년 전, 견훤왕은 후백제를 세웠고 도읍을 전주로 정했다. 후백제는 37년간 후삼국 중 가장 강성했으나 망하는 바람에 그 흔적이 대부분 지워졌다. 고려 태조 왕건은 안남도호부(936~941)를 설치해 5년 동안 후백제 유적을 파괴했다. 전주 시 노송동 일원에 남아있는 ‘전주 종광대 토성’은 후백제 왕도의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됐다. 국가유산청 심의 결과 ‘현지 보존’ 결정이 내려졌다. 종광대 토성은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전주부 고적조에 ‘견훤이 쌓은 고토성’으로 기록돼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대동지지(大東地志)’, ‘완산지(完山誌)’ 전주

부사(全州府史 1942)’ 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곳은 인근 기자촌 재개발에 이어 2008년 전주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돼 보상이 문제다. 이 일대가 종광대와 구(舊) 여단터로 불리는 것은 오래전이다. 정주문화원(2011) 자료에는 “종광대는 물양달(물양령) 북쪽에 있었다는 종루(鍾樓)이다. 후백제 때에 종루라는 애기도 전해지며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여단이 있었다고 한다.”로 나와 있다. 조선시대 시작된 여단은 질병이나 전쟁 등으로 죽은 주인 없는 외로운 혼령을 국가에서 제사 지내주던 제단이다. 이곳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아 전주 시가지와 익산 미륵산, 동고산성, 남고산성 등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이다.

최근 작품전 작은 시선

‘최 은 작품전 작은 시선’이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열렸다. 작품은 ‘숲’, ‘지금이 좋은 때’, ‘연’, ‘고요한 시선의 끝’, ‘수국’ 등이다. 일상 속에 그저 무심코 지나치는 주변의 풍경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관심을 더하면 그 순간은 어느새 소중한진다. 작은 시선에 애정을 담는다면 시선의 끝은 어느새 특별하게 다가와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시선이 바로 그렇다. 무의미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의 시선과 관심이다. 작가는 주변의 평범함이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을 느껴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림 속 인물이 곧 움직일 것 같거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착시 현상은 그림 속 요소들이 가진 ‘리듬’과 ‘시선의 흐름’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림 속 요소들을 단순히 배치하는 것을 넘어, 보는 사람의 시선이 그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리드미컬한 구도라고 한다. 이는 그림에 생동감과 역동성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다. 시선의 흐름을 만드는 능력은 드로잉 실력과 그림의 완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에 생동감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적인 그림에 움직임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그림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편 최 은 화가는 전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특선을 했다. 온고을전, 갑오동학미술공모전, 섬진강 미술대전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미협 회원, 환경미협 회원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